

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지침

축사 출입 전 반드시 작업복과 장화를 신고 들어간다

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일



구제역 발생국가의 축산관련 시설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공항만에 소재한 수의과학검역원에 소독 등 방역조치를 요청합니다.

- 농장 도착 후에는 반드시 목욕·신발소독·의복 세탁 등을 실시하고 2주 이상 축사 출입 및 감수성 동물 접촉 금지
- ※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 필요

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신분확인 등을 철저히 합니다.

- 첫째 : 신분확인 철저
 - 성명, 여권번호, 가족사항, 출신국가에서의 직업 등 확인
- 둘째 :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확인하여 채용 시 방역상 위해가 없는지 확인

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합니다.

- 첫째 :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을 것
- 둘째 : 채용이 성사되면 그 장소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
 - 휴대품을 확인하여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·폐기
 - 의복·신발·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하여 세척·소독 등 조치

농장 근무 시에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합니다.

- 첫째 : 농장 내·외부 청소 및 소독, 질병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준수사항 교육
- 둘째 : 농장 출입 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의복과 신발 착용
- 셋째 : 농장주변 정리 등 업무 수행 후에는 소독 후 축사 출입

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합시다.

- 첫째 : 타 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방문 금지
- 가급적 전화를 사용토록 권고
- 둘째 : 휴일 등 외출 시에는 귀가 후 주요행적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농장 밖에서 소독 후 출입 허용
- 셋째 :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·친지 등은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조치

외국인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



자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는다.

-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, 오리알, 햄, 소시지, 육포, 치즈 등

농장 근무 시 준수사항

- 농장입구에서 차량 및 사람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.
- 축사 출입 전에 반드시 작업복과 장화를 갈아 신고 들어간다.
- 축사입구에서 손과 신발을 소독하고, 축사 밖의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 함께 소독한다.
- 축사에서 나올 때 입구에서 손과 신발, 사용 장비를 소독한다.
- 축사입구 소독조는 2일에 한 번씩 갈아준다.
- 농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업복은 2~3일에 한번 이상 세탁하여 착용한다.
- 사료를 적게 먹거나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신속하게 농장주에게 알린다.
- 소독약제 사용은 약품의 희석비율 대로 사용토록 한다.

일과 후 준수사항

- 타농장 방문은 금지하고 급한 용무는 가급적 전화를 한다.
- 가족·친구 등을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한다.
- 외출할 때는 외출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외출한다.
- 귀가 즉시 손과 신발을 소독하고 깨끗이 목욕한다. ㉞

